Analyses & Alternatives 2023 7(2): 147-178
DOI: 10.22931/aanda.2023.7.2.005

#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YoungBin Hahn**
Sogang University

**Abstract**

While most of countries today are opposing the issuance of private-led cryptocurrency, nevertheless they are actively jumping into the issuance of government-led digital currency such as CBDC. This article aims to find an answer to this dual attitude of countries. To achieve the purpose, this article finds out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power and economic interest that digital currency has and applies it to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the Bretton Woods II System. Then come up to the conclusion that the answer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the current dual attitude of countries is closely related to the crisi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The Bretton Woods II System, which led the world economy through reckless monetary expansion based on credit currency, exposed its limitations through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put countries into difficulties. In this situation, the cryptocurrency, which appeared by raising the issue of the monopoly power of the central authority in issuing currency, had no choice but to act as an opportunity to drive countries further and further into a corner. This article views CBDC as a national response to address these issues. In other words, countries maintain their monetary power by absorbing the challenge of private digital currency at the government level through CBDC, and use this as a stepping stone to reorganize the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in crisis with the intention to use it as a means to their advantage. That is what this article is trying to argue.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8594).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email: deltapavonis@paran.com

**Keywords**
Cryptocurrency,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Monetary Power, Capitalistic Money, Bretton Woods II System

Analyses & Alternatives 2023 7(2): 147-178
DOI: 10.22931/aanda.2023.7.2.005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영빈**
서강대학교

**요 약**

이 글은 국가들이 기술적·경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민간 차원의 암호화폐 발행에는 반대를 하면서도 CBDC와 같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발행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이 글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국제적인 차원인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 적용시켜 현재 국가들이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가 국제통화질서의 위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신용화폐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통화팽창을 일삼으며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브래튼 우즈 II 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그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권력의 통화발행 독점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등장한 암호화폐는 국가들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넣는 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CBDC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즉 국가들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도전을 CBDC를 통해 정부 차원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통해 통화권력을 유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위기에 봉착한 국제통화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주제어**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화폐권력, 자본주의 화폐, 브래튼 우즈 II 체제

---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8594).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email: deltapavonis@paran.com

# Ⅰ. 서론

디지털 화폐가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들의 화폐 독점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면서 등장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때문이었다.[1]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에 의해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 분산 네트워크와 개인 대 개인(p2p)간 거래에 기반을 둔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이다(장천, 2018, p.94). 화폐의 발행, 유통 및 관리 시스템이 정부와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분산화되고 탈중앙화된 디지털 장부(distributed ledger)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들 간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통량도 2100만개로 한정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무분별한 통화팽창을 일삼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야기 시킨 현재의 국가 통화시스템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무정부-자유지상주의자(anarcho-libertarian)들에 의해 화폐의 혁명이라고까지 선전되면서 열렬히 지지되었었다(Booth, 2018). 이들은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작동방식을 통해 거래내역이 변조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나며, p2p 네트워크 체계는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적으로 이체·송금이 가능한 범세계성(globality)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이체내역·발신계좌·수신계좌·잔액 등 거래역사에 대한 모든 내용이 조회 가능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결제에 있어 낮은 비용과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암호화폐가 미래의 통화체제를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는 디지털 또는 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통화로 가상화폐,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게임이나 커뮤니티 등 특정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형태의 가치교환의 수단으로 디지털 화폐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분장원장기술 등을 활용하여 암호화된 디지털 가치교환 수단으로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중앙관리 시스템을 배제한 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법정통화나 실물자산 등의 가치와 연동되어 가치 변동성이 낮은 암호화폐를 지칭하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 화폐로 정의된다(안병선&편명선, 2022, p.3).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처럼 정부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신뢰가 결여됨에 따라 가격변동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중앙통제 없는 암호화폐는 자금세탁, 테러리스트 지원 등과 같은 불법거래를 촉발시키고 해킹의 위험, 채굴의 비효율성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암호화폐가 화폐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심지어 이들은 2019년 6월 페이스북(Facebook)이 코인의 가치를 주요 국가들의 통화에 연동시켜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의 암호화폐들의 문제였던 가격변동성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화폐인 리브라(Libra)를 발표하였을 당시에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디지털 화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마저 보였다.[2] 예를 들어 프랑스의 재무장관인 르메이르(Bruno Le Maire)는 리브라가 국민국가 주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해치는 것이기에 폐기되어야 할 화폐라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의장인 파월(Jerome Powell)도 사이버 공격, 개인정보 유출 및 위조 등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리브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경제학자인 크루그만은 암호화폐가 통화체제를 300년이나 되돌려 놓는 퇴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Krugman, 2019), 미국의 미래학자인 쉬리어도 리브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그룹들의 목소리에 갇힌 사회분열을 조장함으로써 그 어떤 것보다 더 민주주의 제도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hrier, 2019).

이처럼 대다수의 국가 및 전문가들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며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영란은행 총재인 카니(Carney)가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통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디지털 화폐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

2) 리브라는 주요 국가들 및 중앙은행들에 의해 많은 비판에 직면하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2020년 12월 당초 복수 통화 바스켓 연동이라는 목표를 낮춰 미국 달러화에만 가치를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명칭을 디엠(Diem)으로 변경하였다. 이 글에서는 편의 상 리브라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장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에서는 CBDC로 표기함) 발행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스웨덴 또한 적극적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뛰어들어 개인 소매 경제용 디지털 화폐인 이크로나(e-Krona) 발행 연구를 진행시켰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디지털 화폐의 허브를 구축할 욕심을 가지고 국제결제시스템(SWIFT)의 전자적 버전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민간 디지털 화폐에 대항하기 위해 2019년 유로존 국가로는 처음으로 CBDC 개발을 공식화하였다. 중국은 암호화폐의 거래업무를 금지시키는 조치와는 별도로 이미 2014년부터 CBDC 발행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암호법'을 실시하여 디지털 화폐 시장 선점과 통화패권 전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 역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CBDC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기술적·경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민간 차원의 암호화폐 발행에는 반대를 하면서도 왜 국가들은 CBDC와 같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이 글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국제적인 차원인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 적용시켜 현재 국가들이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가 국제통화질서의 위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신용화폐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통화팽창을 일삼으며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브래튼 우즈 II 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그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권력의 통화발행 독점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등장한 암호화폐는 국가들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넣는 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CBDC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즉 국가들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도전을 CBDC를 통해 정부 차원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통해 통화 권력을 유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위기에 봉착한 국제통화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II.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

디지털 화폐를 옹호하는 자들은 디지털 화폐가 분산화되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란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화폐의 보안성, 투명성 및 범세계성을 제고시키는 최적의 화폐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를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디지털 화폐는 기존의 화폐 논쟁에서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가해진 비판과 같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게 된다. 주류 경제학자들 역시 화폐를 단순히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 인간들이 고안해낸 기술적인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이 경우 화폐는 시장관계가 종결된 후 이를 단지 양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시장관계 자체를 형성시키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외생적인 변수로 취급되게 된다. 하지만 화폐가 외생적 변수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은 이미 많은 화폐연구 전문가들이 지적하여 왔던 문제이다. 이들은 현실적인 현대 시장경제체제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지며 화폐를 매개로 하는 순간에만 법적이고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화폐는 이미 형성된 시장관계를 양적으로 반복하는 외생적인 변수가 아니라 시장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내생적인 변수임을 강조하였다(Aglietta, 2002; Heinrich, 1991). 이러한 화폐이론적인 맥락에서 볼 때 디지털 화폐는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외생적인 변수가 아니라 내생적 변수로 재구성되면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내생적 변수로써 화폐는 신뢰를 기반으로 시장관계를 구성해나가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화폐의 토대는 신뢰라고 할 수 있다(Aglietta, 2002, p.34; Cohen, 1999, p.32). 화폐의 토대가 신뢰인 이유는 시장에 존재하는 불확실성 때문이다.[3]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본능에 따라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장에서 상당한 거래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들은 불확실성을

3) 이 불확실성은 흔히 경제학자들이 상정하고 있는 합리적 계산이라는 개연성을 갖는 리스크(risk)와는 다른 개념으로써 그 어떤 주관적·객관적 계산에 의해서도 예측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Keynes, 1936, p.149).

제거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갈망하여 왔는데 이때 이들의 갈망에 부응하여 신뢰를 확보하며 등장한 것이 화폐이다. 화폐는 가치척도(교환)수단, 저장수단 및 지불수단 기능들을 바탕으로 시장의 교환, 생산, 분배관계에 일정하고 안정된 규칙 및 구조를 제공하면서 다른 모든 수단들에 비해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시켜줌으로써 인간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관계를 주도적으로 구성해나가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화폐에 내재되어 있는 이 신뢰도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인간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내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치·경제·사회적인 조건을 반영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다(Braun, 2016, p.1070). 이런 신뢰도는 화폐의 역사에서 보았을 때 상품화폐, 금속화폐, 신용화폐로의 발전이라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역사를 거치면서 축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Altvater, 1997, p.96).[4] 가장 초기의 화폐 형태인 상품화폐는 카카오 씨, 소금, 말린 생선, 옥수수, 가축 등과 같이 물질적인 가치를 갖는 생산물 가운데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한 하나를 선택하여 화폐로 사용한 경우이다. 그러나 상품화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상품화폐는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관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물질적 가치가 빠르게 소멸된다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가치저장 수단으로 기능하는데 큰 문제를 노출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상품화폐로는 사회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상품화폐는 금속화폐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 금속화폐가 상품화폐를 대체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품화폐에 비해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금속화폐는 자신의 물질적 가치가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치저장 수단으로써 상

4) 현대화폐이론(MMT)은 상품화폐론이 잘못된 시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민병길&박원익, 2018, p.61). 하지만 화폐의 신뢰도가 국가와 같은 공적인 권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이러한 주장은 논쟁적이다. 화폐의 수용은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폐의 정의와 기원에 대해서는 논쟁적이지만 이 글은 이런 논쟁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품화폐론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논리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품화폐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금속화폐 역시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금속화폐의 주재료인 금·은이 채굴될 수 있는 매장양이 전 세계적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단점은 금속화폐로 하여금 원활한 지불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해하였으며 결국 이 문제를 극복시켜주며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를 확보한 신용화폐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

신용화폐가 금속화폐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물질적인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특성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신용화폐는 상품화폐와 금속화폐처럼 주어진 물질적인 양에 구속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무한대로 발행될 수 있기에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화폐 역시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단점은 물질적인 특성에서 분리된 신용화폐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기에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치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것이었다. 현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미래가치를 갖는 신용화폐는 정확히 표현하면 신용에 의해 창출된 부채라고 할 수 있다. 부채는 일정기간 동안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며 채무자가 부채를 청산하는 순간 미래가치로써의 부채는 현실적인 가치를 갖는 화폐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부채와 화폐는 엄밀히 말해 동일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부채가 현실적인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시장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었다.[5] 문제는 시장관계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채의 청산과정이 항상 순탄한 과정을 거치며 실현되지는 않는다는 데에 있다. 청산과정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청산과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실현되어야할 미래가치 가운데 자신의 지분을 시간적으로 앞당겨 선점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미래가치 실현의 의무는 시장과정에서 물질적인 재화를 생산하여 청산하는 채무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 채권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의 요구가 크면 클수록 채무자의 부채 청산과정은 점점 어려운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채에 불과한 신용화폐는 그 발행권자의 권한과 요구에 대해 적

5) 부채는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내지만 화폐는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김종철, 2015, p.163).

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면서 화폐에 대한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는 단점을 안고 있는 것이었다.

물질적 가치와의 분리 속에 내재되어 있던 이러한 단점으로 말미암아 신용화폐 자체는 상품화폐와 금속화폐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신용화폐가 주된 화폐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적인 권위를 가진 국가가 정치·법·제도적 조합을 통해 신용화폐에 강제적인 신뢰를 부여하면서 위와 같은 신용화폐의 단점을 희석시켰기 때문이다. 소위 자본주의 화폐라고 명명되는 이 신용화폐는 17세기 후반 영국에서 은행권을 제도화시킨 금세공업자(goldsmith)들과 전쟁자금 및 국가재정에 막대한 돈이 필요했던 왕실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면서 법·제도에 의해 정치사회적으로 탄생된 산물이었다(김종철, 2015, p.169).[6] 이렇게 탄생된 신용화폐는 국가가 화폐발행 권한을 갖는 중앙은행을 매개로 통화 공급량을 통제함으로써 신용화폐의 단점을 극복하고 화폐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화폐는 화폐의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았듯이 신용화폐의 문제는 소재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다른 소재를 갖는 다음 단계의 화폐가 발생하기 전에는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신용화폐에 대한 신뢰도는 국가의 공적인 권위와 같은 일방적인 강제력에 의해 부여될 성질이 아닌 것이다. 자본주의 화폐는 신용화폐의 단점을 극복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희석시켰을 뿐이다.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자본주의 화폐가 희석시킨 신용화폐의 단점을 극복하여 화폐의 신뢰도를 회복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디지털 화폐는 분산화되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채굴되어 유통될 수 있는 화폐수량을 한정시킴으로써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용화폐 청산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화폐의 신뢰도 하락을

6)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자본주의 화폐라는 용어는 신용화폐의 역사적 형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위에서 서술한 신용화폐의 일반적인 특성이 특정한 시기에 법·제도에 의해 역사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 특수한 형태의 신용화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당시 유통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2100만개를 한정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가 신용화폐의 무한정한 발행남발을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용화폐의 본질적인 문제, 즉 가치실현의 시간적 분리를 통해 신용창출 행위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선점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가운데 사회구성원을 희생시키고 시장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는 신용화폐와 유사하게 기술적 우위라는 기대심리에 기댄 신용에 의해 창출된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화폐 역시 청산과정이 필요한데 실물경제와 거의 무관하게 작동되고 있는 현재의 디지털 화폐를 고려할 때 이 청산과정은 신용화폐보다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화폐권한을 독점하는 국가들의 횡포로 인해 청산과정 및 시장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과는 달리 디지털 화폐는 분산화되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이 중앙권력적인 독점 가능성을 방지시켜 청산과정 및 시장경제를 보다 안정된 형태로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디지털 화폐가 분산적이고 탈중앙화된 화폐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블록체인 기술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자체가 수평적이고 분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의문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바라바시와 같은 네트워크 이론가가 제시한 네트워크는 오히려 위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며 불안정한 구조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Barabási, 2002). 그녀에 의하면 힘의 원천이 링크(link)에 있는 네트워크는 새로운 노드(node)들의 링크 추가를 통해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때 링크는 임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멱함수 법칙(power law)을 따르는데 이로 인해 적익부(fit-get-rich)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트워크에는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위계구조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적익부 현상을 보이는 노드는 허브(hub)로 발전하게 되고 네트워크 구조는 이와 같이 링크가 많은 매우 극소수의 허브에 의해 지배되게 되는 특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허브의 장애가 발생할 시 네트워크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특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디지털 화폐는 중앙집중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채굴의 81%가 중국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규모의 채굴 풀(mining pools) 10개 가운데 8개가 중국에서 운영되었으며 비트코인의 95%가 4%의 소유자에 집중되었다는 통계는 현실세계에서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가 매우 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ooth, 2018; 민병길, 성영조&박원익, 2018, pp.8-9). 이렇게 볼 때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탈중앙화되었다고 할 수 없는 디지털 화폐로는 신용화폐 독점과 그 폐단을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히려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의 위계적이고 중앙집중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실물경제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현재의 디지털 화폐는 신용화폐와 유사하게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이 생산한 부를 점유하는 권력이며 그 권력이 국가가 아닌 민간차원으로 옮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화폐는 신뢰도를 축적해 나가는 화폐의 역사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불완전한 형태의 화폐라고 볼 수 있다.

## III. 디지털 화폐의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도전

화폐의 역사에서 보았을 때 디지털 화폐는 신용화폐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한 화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디지털 화폐가 관심을 받고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신용화폐와 유사하게 기술적 이점을 통해 가치를 시간적으로 분리시키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력적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화폐는 국가가 발행권한을 독점하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신용창출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생산할 미래의 사회적 부를 점유하여 이득을 취하는 분배적 권력행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디지털 화폐 역시 화폐발행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독점적 권한을 민간차원 이전시킬 뿐 권력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화폐와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즉 디지털 화폐는 자본주의 화폐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소수의 채굴업자가 실물경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디지털 화폐 발행(소유)에 대한 독점력을 행사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이 생산한 사회적 부의 일부를 점유하여 이득을 취하는 분배적 권력행사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디지털 화폐는 신용을 남발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이란 명분 속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지만 실상은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있는 권력적 특성이 국가가 누리던 이득을 민간에게 이전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장에서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그동안 국가가 독점해 왔던 화폐발행 권한 및 이득을 잠식하는 것이기에 국가의 통화주권에 대한 도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국가에 대한 도전이라는 특성은 세계화·정보화로 인해 세계가 네트워크라는 단일한 장으로 통합되던 초기만 하더라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낮고 그 시장규모가 작았던 관계로 기존의 법정화폐체제 또는 국가의 통화주권을 크게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었다(Helleiner, 1998). 그러나 오늘날 암호화폐의 종류가 최대 1만개를 뛰어넘고 그 시가총액 또한 3조 달러가 넘을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성장한 상황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는 국가들에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서기 시작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의 기능을 잠식하는 경로를 통해 국가의 통화주권에 도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본주의 화폐가 탄생한 이래 국가는 중앙은행의 통화·환율정책을 통해 화폐공급을 조절하여 실물경제 및 화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통해 시장관계를 통제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여 왔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디지털 화폐의 등장이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통화정책의 수단인 공개시장조작 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 이자율 정책 등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Herrera, 2002; Palley, 2002; Benigno, 2019). 이러한 이유는 디지털 화폐의 유통이 시장에서의 화폐수요를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 통화·환율정책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중앙은행의 능력을 잠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시장에서 민간인들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여 현금처럼 사용한다면 은행들은 민간인들에 대한 대출 능력이 감소될 것이며 이는 중앙은행이 은행들에게 요구하는 지급준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민간인들의 화폐수요 감소는 중앙은행의 이자율 정책이 실물경제로 연결되는 파급효과를 약화시키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이자율 결정

능력은 거의 상실되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통제되기 어려운 시장관계 및 금융시스템은 불안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Palley, 2002, p.230; 이승호, 2021). 한편 디지털 화폐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다면 환율이 독립적으로 결정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환율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의 유통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위협은 화폐수요의 감소와 함께 법정화폐 공급이 축소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화폐의 특성을 이용해 그동안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화폐발행차익이라는 시뇨리지 효과(seigniorage effects)가 크게 줄어들어 중앙은행의 수입을 감소시키면서 중앙은행의 능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능력을 잠식시킨다는 데에 있다(송준혁, 2017, p.63).

시뇨리지 효과에 대한 디지털 화폐의 위협은 국내체제보다는 국제체제에서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자본주의 화폐의 탄생과 함께 화폐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제도적인 독점적 통제권을 가지게 된 국가는 그동안 자국 영토 내에 분산되어 있었던 다양한 주체들의 화폐발행차익을 중앙은행 차원으로 통합시킴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들은 이런 이득을 국내체제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통화를 국제화하여 시뇨리지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여 왔었다. 통화경쟁으로도 표현되는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패권국은 강해진 자국의 통화를 이용하여 막대한 양의 통화를 발행하면서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뇨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런데 통화의 국제화를 통한 시뇨리지 효과의 극대화는 결국 신용화폐의 특성 상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이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타국의 희생을 대가로 자국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었기에 국가들 간의 갈등과 세계시장의 위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통화를 남발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질서의 역사에서 보았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 국가(중앙은행)들의 통제력은 점점 약화되는 과정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세계화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폭발적인 증가는 국가 및 중앙은행들의 통제력을 크게 약화시키면서 디지털 화폐가 국가들의 통화주권에 도전할 공간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통화질서의 역사에서 보았을 때 금본위제도(Goldstandard)나 브래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시대 때만 하더라도 자본주의 화폐의 남발을 통한 시뇨리지 극대화 추구 결과가 가져올 폐단은 어느 정도 희석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이때만 하더라도 각국의 통화들이 금과 같은 물질적 가치에 구속되어 신용화폐가 남발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제약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들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보유량에 맞추어 통화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던 금본위제도에서는 신용화폐 발행남발의 폐단을 가장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는 동시에 금본위제도 붕괴의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금본위제도 자체에 내재되어 있던 금 부족이란 문제는 국가들의 중앙은행 정책들이 증가하는 시장의 화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김기수, 2009, p.82). 금본위제도와 달리 미국의 달러만이 금에 연계되어 1944년 탄생되었던 브래튼 우즈 체제는 금 1 온스 = 35달러라는 금태환성을 바탕으로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지만 미국경제가 쇠퇴하던 195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우위와 금보유량에 대한 자신감 속에 달러발행을 남발하며 극대화된 시뇨리지 효과를 누려왔지만 경제가 쇠퇴하자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1970년대 초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미국의 시뇨리지 특권을 비난하며 달러에 대한 금태환을 요구하는 국가들간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후 많은 국가 및 금융기관들의 도미노적인 금태환 요구와 함께 미국의 금보유량이 바닥나는 가운데 미국의 금태환 정지 선언을 통해 브래튼 우즈 체제도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었다.

브래튼 우즈 체제의 붕괴는 국가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화폐 발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금태환성 의무가 사라지면서 화폐는 더 이상 물질적인 가치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신뢰만을 바탕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발행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일부 선진 국가들은 금융세계화를 주도하면서 증권화(securitization)된 금융상품들의 판매를 통해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세계경제를 ‘부채경제(debt economy)’ 또는 ‘금융축적 중심의 성장 체제(finance-led growth regime)’로 완성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완성된 부채경제

는 국가들에게 신용팽창을 통한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들 간의 갈등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빈번한 위기를 발생시키는 신용화폐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국가(중앙은행)들의 통제력을 크게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디지털 화폐가 국가의 통화주권에 도전하는 정치경제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즉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부채경제가 야기한 국가들 간의 갈등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 위기의 산물인 것이었다(Booth, 2018).

부채경제의 특징과 문제점은 오늘날 국제통화질서와 경제작동 메커니즘을 지배하고 있는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서 뚜렷하게 보여 지고 있다. 둘리, 폭스-랜도&가버(Dooley, Folkes-Landau&Garber, 2003; 2009, 이하 DFG로 표현)에 의해 명명된 이 체제는 세계경제가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2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중심부는 패권국인 미국을 의미하며 주변부는 과거에는 유럽과 일본이었다가 현재는 중국을 포함한 일부 신흥시장국가들로 대체된 상황이다. 여기서 주변부 국가들은 중심부 국가의 통화인 달러에 페그되어 저평가된 자국의 통화를 기반으로 수출중심주의적이고 실물경제 중심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며 이때 그 대가로 주변부 국가들은 중심부인 미국이 발행한 달러금융자산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국제준비금으로 축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중심부인 미국은 주변부 국가들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기능하여 이들의 수출중심주의적인 성장방식을 뒷받침해주면서 그 대가로 세계시장에 달러 및 금융자산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판매)하는 세계은행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금융중심주의적인 성장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브래튼 우즈 II 체제는 중심부의 신용팽창을 주변부의 실물경제가 뒷받침하면서 성장하는 작동방식을 가진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중심부의 신용팽창을 뒷받침하는 주변부의 능력  존재 여부가 이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DFG는 주변부를 대표하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아직 최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역할이 한계에 도달할 때쯤이면 인도가 그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점을 들면서 브래튼 우즈 II 체제는 매우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체제라는 점을 주장하였다(Dooley et. al., 2003, p.4).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드러났듯이 브래튼 우즈 II 체제의 안정성은 DFG의 주장처럼 장기적으로 확보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서의 신용화폐는 브래튼 우즈 체제의 신용화폐와는 달리 또 다른 차원에 의해 구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후자가 금과 같은 물질적 가치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었다면 전자는 주변부 국가들의 실물경제적인 가치에 의해 구속되는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따라서 중심부의 신용팽창은 무한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주변부 국가들의 실물경제에 의해 뒷받침될 때만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신용화폐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사회구성원이 생산할 미래가치를 미리 선점하고 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변부 국가들의 지속적인 뒷받침이 확보되기는 어려웠다. 금융중심주의적인 성장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성장을 위해 발행하는 신용 기반의 달러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브랜튼 우즈 II 체제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가 달러금융자산을 대량 매입해주는 방식을 통해 주변부 국가들에게 전가되면서 주변부 국가들의 실물경제 성장을 제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중심부인 미국이 유발시킨 인플레이션이 달러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주변부 국가들의 수출경쟁력 저하와 경제성장 제약으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 주변부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달러금융자산을 매입하여 주었지만 이를 통해 수입된 인플레이션(imported inflation)의 압력은 주변부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제약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금융시장마저 불안정에 노출되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와 같이 중심부의 신용팽창의 속도와 규모를 주변부 국가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신용경색과 침체된 세계경제를 회복시켜야한다는 명분하에 추진된 중심부 국가들의 마이너스 금리 및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브래튼 우즈 II 체제 내에서 국가(중앙은행)들의 화폐를 통한 시장질서 통제력 상실이란 문제점만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앙은행들이 팽창시킨 통화가 단기적인 수익만을 추구하는 은행·금융기관들에 의해 금융영역에서만 맴 돌며 실물경제적인 투자와 소비로는 연결되지 못하면

서 경기침체를 극복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팽창된 통화가 유발시킨 인플레이션은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 주변부 국가들을 더욱 더 압박하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신희영, 2014, p.198; 정태인, 2014, p.135). 이에 따라 중심부와 주변부가 갈등관계로 접어들면서 브래튼 우즈 II 체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디지털 화폐 등장의 정치경제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디지털 화폐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국가(중앙은행)에 의한 신용남발의 폐단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브래튼 우즈 II 체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 이상 작동되기 어려운 종말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디지털 화폐를 통해 새로운 국제통화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Birch, 2019). 이렇게 볼 때 디지털 화폐는 미래의 국제통화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통화패권 경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IV. 민간 디지털 화폐에 대한 국가의 대응: CBDC의 이중적 특성

2015년 영란은행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직접적인 부채이자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라고 정의되고 있다(BIS et al., 2020). 이런 CBDC가 국가들의 관심을 받으며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들이 현저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이후의 일이다. 특히 리브라가 등장한 2019년 이후부터는 CBDC에 대한 국가들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어 현재는 세계 GDP 95%에 해당되는 114개국이 CBDC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CBDC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1 참조), 그동안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오던 국가들이 또 하나의 디지털 화폐 형태인 CBDC에 대해 이처럼 전향적인 태도로 변한 것에 대해 이들은 변화된 환경적 조건이 작용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환경조건이란 첫째, 가상화폐,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고 확산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글로벌 현금이용률이 지난 10년간 20% 정도 축소될 정도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7], 셋째,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확산되고 암호화폐의 시장규모도 2021년 기준 2.2조 달러 수준으로 급등하였지만 루나·테라 사태에 따른 암호화폐 신뢰도가 하락하고 금융 불안정이 증가하였다는 점 등이었다(안병선&편명선, 2022, p.3). 국가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화폐의 가치를 국가가 보장하여 민간 주도의 디지털 화폐에 비해 월등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불수단이란 장점을 갖고 둘째, 마이너스 금리 및 통화 공급을 증가시켜 통화정책의 범위 및 효과를 넓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식된 국가(중앙은행)들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수단이란 장점을 갖는 CBDC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Niepelt, 2019; Bindseil, 2019; Adrain, 2019).

**〈표 1〉 세계의 CBDC 연구 · 개발 현황(2023년 1월 현재)**

| CBDC 연구·개발 형태 및 해당 국가 수 | 대표적 국가들 |
|---|---|
| 도입 (11 개국) | 바하마, 동카리브해(8개국),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
| 시범운영(18 개국) |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한국, 일본, 호주 |
| 개발(32 개국) | 미국, 캐나다, 브라질, 유럽연합, 영국, 대만, 인도네시아 |
| 연구(39개국) | 멕시코, 페루, 모로코, 헝가리, 체코, 파키스탄, 베트남 |
| 비활성(15개국) | 아르헨티나, 덴마크, 이집트, 북한 |
| 취소(2개국) | 에콰도르, 세네갈 |

자료: Atlantic Council, https://www.atlanticcouncil.org/cbdctracker/

하지만 최근 들어 국가들이 CBDC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한 이유는

7)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의 현금이용률은 95.7%에서 77.9%로 감소되었고 선진국은 59.3%에서 30.9%로 감소되었다. 특히 중국은 99%에서 41%로 떨어질 정도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위와 같은 기술·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국제통화질서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통화전쟁과 긴밀하게 연계된 정치적인 이유가 보다 근본적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irch, 2019; 박효길, 2021; 김서광, 2020; 홍재은, 2020). 앞서 보았듯이 신용화폐의 발행권한을 독점한 국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용화폐의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신용화폐의 특성이 극대화된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었다. 위기로 인해 주변부 국가들이 중심부인 미국의 신용팽창을 더 이상 뒷받침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미국의 신용팽창 능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위기 발생 직후 추진시킨 양적완화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위험성만 증가시켜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 특히 미국(연준)의 통화정책 능력을 잠식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었다. 이처럼 국가(중앙은행)들의 신용팽창 및 관리 능력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들의 CBDC 도입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은 2019년 리브라의 등장이었다. 리브라는 코인의 가치를 기축통화에 페그시킴으로써 그동안 암호화폐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던 극심한 가격 변동성 문제를 기술적으로 극복한 스테이블코인이였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는 이미 2014년 달러와 연계되어 발행된 테더(Tether)에 의해 국가들의 관심을 유발시켰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라가 테더와 달리 국가들에게 가져다 준 충격은 매우 큰 것이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Facebook/Meta)이 발행한 리브라는 전 세계적으로 일간 18억에 달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감안하면 기존의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 기업의 화폐발행은 국제 통화질서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리브라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실상은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화폐발행 권한 및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잠식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CBDC의 도입은 국가들의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민간주도적인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 차원으로 흡수하여 이들의 도전을 뿌리침과 동시에 국가주도적인 CBDC를 통해 위기에 빠진 국제통화질서를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재편하는데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모색되기 시작한 것이었다(박찬종, 2020, p.161).[8)]

## 1. 주변부의 CBDC 도입 배경: 중국

민간 디지털 화폐의 도전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CBDC 도입에 대한 국가들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고 있지만 국제통화질서의 재편 문제와 관련하여서 볼 때 국가들간의 이해관계는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심부와 주변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되는 브래튼 우즈 II 체제라는 국제통화질서에서 보았을 때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들의 CBDC 도입 목적은 뚜렷하게 대비되며 나타나고 있다. 주변부를 대표하는 중국의 경우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서 중심부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신용팽창의 기득권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이에 대한 도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중심부인 미국의 경우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공고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CBDC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전환에 따른 정부의 통제력 약화 우려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겠지만 그보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증폭된 미국의 달러패권질서에 대한 불만이 더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9] 미국이 2008년 위기의 원인을 주변부 국가들의 책임으로 돌린 것과 달리 중국은 위기의 원인이 미국의 신용남발에 의한 과소비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신용남발을 견제하기 위해 2009년 초국적 준비통화(super sovereign reserve currency)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같은 해에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공식선언하면서 달러패권 중심의 국제통화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가들 간의 통화스왑, 위안화의 무역

8) CBDC의 속성과 도입 배경을 볼 때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주도의 디지털 화폐처럼 기존의 국제통화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주도 디지털 화폐가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기존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화폐발행권한, 통화·환율정책의 효과성, 시뇨리지 효과를 통한 금전적 이득 등을 잠식하면서 국제통화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CBDC는 오히려 그 반대인 기존의 국제통화시스템의 내용 및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2008년 위기 이후 달러패권질서에 대한 불만은 중국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가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불만은 현재 탈달러화라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달러패권질서를 잠식시키는 경향을 야기하고 있다. 다양한 탈달러화 경향에 대해서는 한영빈(2022)를 참조할 것.

결제 수단 확산, 채권시장 육성, 달러중심의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를 우회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국제결제 시스템인 국경간은행결제시스템(cross 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CIPS) 창설 등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시켜오던 중국은 CBDC가 민간 디지털 화폐의 도전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달러패권을 견제하고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통화질서를 재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CBDC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와 은행들의 암호화폐 관련 거래업무를 금지시켰으며 2021년에는 암호화폐 채굴마저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열풍이 자국에 집중되면서 자산버블 및 자본이탈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시스템의 통제력 잠식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이처럼 중국은 민간 주도적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규제적인 태도를 취해오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가주도적인 CBDC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 왔었다. 중국은 이미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Digital Currency and Electronic Payment, DCEP/eCNY) 도입을 위한 기술적·법률적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중국인민은행 산하 디지털 화폐연구소를 설립하여 상업은행과 인터넷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에 착수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등장한 리브라는 중국이 CBDC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코인의 가치를 기축통화에 페그시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한 리브라의 통화바스켓(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에 위안화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문정은, 2019). 2021년 기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18.5%이며 세계무역의 15.1%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대국이며 리브라와 유사한 IMF의 특별인출권(SDR)의 비중도 10.9%일 정도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리브라가 위안화를 통화바스켓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중국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자 위협으로 다가 왔었다(이윤정, 2023; 문정은, 2019). 만일 위안화가 포함되지 않은 리브라의 사용이 증대된다면 위안화의 국제적 영향력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리브라가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브라의 확산은 미국 달러패권질서를 더욱 공고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명백하였기 때

문이다. 따라서 리브라의 등장은 중국 CBDC의 개발과 도입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리브라의 충격 속에서 중국은 2020년 1월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암호법(密码法)을 제정하여 리브라와 같은 외국의 디지털 화폐로부터 자국의 통화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고 6대 국유상업은행 등 지정운영기관이 개인·기업에 태환해주는 이중운영체계(two-tier system)로 운영되며 최종적으로는 중국인민은행의 중앙관리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박미영&최공필, 2022, p.236; 박동욱, 2021, p.42). 그리고 이런 디지털 위안화는 2019년부터 시범운영 단계에 돌입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단계는 대략 3단계의 시기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시범지역 내에서 CBDC 이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를 위해 4+1 시범지역(선전·쑤저우·슝안신구·청두 +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선정되어 시행되었다. 이어진 두 번째 단계인 2021년부터는 10+1(‘4+1’ + 상하이·하이난·창사·시안·칭다오·다롄)로 시범지역을 확대하여 시범지역 간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었다. 세 번째 단계인 현재에는 중국 전역 및 글로벌 범위로 확대되는 CBDC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홍콩·태국·아랍 에미레이트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여러 국가들의 CBDC를 하나로 묶는 ‘M-CBDC Bridge’ 프로젝트와 2021년 1월 SWIFT와 중국인민은행 산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을 들 수 있다(조고운, 2021, p.16). 이와 같은 시범운영 단계를 거친 결과 현재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2021년 기준 파일롯 테스트 시나리오가 약 360만개에 달하고 1억 2천 3백만 개의 개인 전자지갑이 개설되었으며 총 거래액이 5백 6억 위안(미화 87억 6천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2030년에는 중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의 6%를 차지할 수준으로까지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박동욱, 2021, p.39; 조고운, 2021, p.2). 중국은 이런 디지털 위안화의 확대를 통해 국제통화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브래튼 우즈 II 체제 하의 달러패권구조에 대해 도전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 2. 중심부의 CBDC 도입 배경: 미국

중국의 CBDC가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서 중심부인 미국의 신용팽창 남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달러패권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성격을 띤 것이라면 미국의 CBDC 도입 배경은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 2 가지 요인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선언이었다. 2 가지 요인은 모두 브래튼 우즈 II 체제 하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신용팽창의 능력을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었기 어떠한 형태로던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다.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미국은 2013년 버냉키(Bernanke)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그 뒤를 이은 엘렌(Yellen) 의장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때 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지는 않았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의 사용이 확대되고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2015년 들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이영주, 2018, p.68). 이후 비트코인 열풍이 일었던 2017년에는 가상 화폐 공정 세금 법안(The Cryptocurrency Tax Fairness Act of 2017)이 발의되고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에 의해 비트코인 선물이 도입되었다. 또한 비트코인 재열풍이 불었던 2021년에는 1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은 민간 주도의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화폐의 도전에 대해 중국과 같이 규제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암호화폐의 전면적인 금지조치를 통해 규제를 한 것과는 달리 미국은 암호화폐를 제도권 영역으로 흡수하여 자신들의 규제 틀 안에서 통제하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두 국가 간의 암호화폐 규제 형태에서는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암호화폐에 비해 중국 위안화의 도전은 보다 심각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위안화의 국제화 성공은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서 중심부와 주변부로 분업화된 경제작동방식과 국제통화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 또는 붕괴시킬 수 있는 성

격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러한 우려는 2008년 위기와 함께 첨예화되었던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10] 논쟁에서 나타났었다. 이 논쟁에서 미국은 위기의 원인이 주변부 국가들이 자신들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생산적인 소비 및 투자로 연결시키지 않고 과잉저축(Global Saving Glut)을 하면서 자금대여자(net lender)로 전환함에 따라 세계의 유동성이 과잉공급된 것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변부 국가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Bernanke, 2005). 이러한 주장은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서 주변부와 중심부 국가들은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해야한다는 것이었으며 신용팽창 및 유동성 공급은 오직 중심부인 미국만이 하는 역할이기에 주변부의 자금대여자로의 전환은 월권행위라는 불만을 표출한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선언은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서 중심부인 미국의 역할에 대한 도전을 직접적으로 공식화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그동안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서 신용팽창을 주도하며 막대한 시뇨리지 특권을 누리고 있던 미국의 국가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평가절상 및 금융시장 개방 압력, 초저금리를 통한 양적양화 정책,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지정 등과 같은 수단들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면서 중국과의 통화전쟁에서 자국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었다.[11]

중국 위안화의 도전에 대해 미국이 보다 본격적인 대응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은 2019년 리브라의 등장과 함께 중국이 CBDC를 달러패권 도전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면서 부터이다(이용욱, 2021, p.3). 미국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디지털 화폐 시장이 중국에 선점될 경우 통화경쟁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통화바스켓에서 달러의 비중이 가장 높고 미국

10) 글로벌 불균형이란 국제수지 부문에서 중심부인 미국의 커다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주변부인 중국, 한국 및 중동 산유국 등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고착화되면서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들 간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11) 미국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유지해 많은 경제제재 수단들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 역시 경제제재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유발됨으로써 경제제재를 매개로 하는 국제무역 및 통화질서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경제제재와 관련하여서는 조형진(2021)을 참조할 것.

기업이 발행하는 특징을 가진 리브라의 등장이 달러패권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달러패권을 강화시켜 중국과의 통화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디지털 화폐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은 태도를 전향하여 중국의 달러패권 도전에 CBDC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 미 연준 이사인 브래인너드(Lael Brainard)는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가 CBDC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미국도 CBDC 발행, 감독주체, 금융안정성 등과 관련된 제반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박미영&최공필, 2022, p.239). 또한 같은 해에 IMF, BIS, BoE, Accenture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달러(Digital Dollar)'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연준이 직접 발행하는 달러 연동 디지털 화폐를 구상하기 시작하였다(박미영&최공필, 2022, p.239). 2021년에는 옐린(Yellen) 미 재무장관이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밝혔고 파월(Powell) 연준 의장도 CBDC가 현금과 공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CBDC 발행 가능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박동욱, 2021, p.50). 그리고 최근 들어 미국은 파월 연준 의장을 통해 2023년에는 디지털 달러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할 정도로 CBDC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CBDC 도입에 대한 반대가 존재하고 있다. 퀄스(Randal K. Quarles)와 월러(Christopher Waller) 연준 이사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유행에 편승하여 비판적인 검토없이 CBDC를 도입하면 이는 미국에게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박동욱, 2021, p.54).[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도전을 뿌리치고 달러패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CBDC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2) 퀄스는 CBDC 발행은 연준이 시중은행을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하면서 기존의 은행체계를 어렵게 하면서 경제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법화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월러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민간부분의 혁신이 안정화되면 결국은 달러화 통화정책의 범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CBDC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 V. 결론

이 글은 최근 들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국가들의 이중적인 태도, 즉 민간주도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규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주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이 글이 주목한 것은 디지털 화폐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경제적인 특성이었다. 화폐이론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디지털 화폐는 현재의 지배적인 화폐인 자본주의 화폐의 단점을 극복한 화폐는 아니었다. 오히려 디지털 화폐는 자본주의 화폐와 유사한 특성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화폐였다. 즉 디지털 화폐는 자본주의 화폐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가치의 우월성이란 기대심리에 기대어 창출해 낸 디지털 형태의 부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청산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타인 또는 타국의 희생을 대가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면서 시장경제를 불안정과 위기로 몰아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화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지털 화폐가 국가들에 의해 CBDC 형태로 지지되고 있는 이유는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 부채가 국가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막대한 정치경제적인 이득 때문이었다.

디지털 형태의 부채로써 디지털 화폐는 기존의 자본주의 화폐 외에 새로운 신용창출 영역을 탄생시키는 것이며 이런 디지털 화폐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신용팽창에 따른 보다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화 권력의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강화시키면서 시장 질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커다란 이점을 갖는 디지털 화폐는 타인뿐만 아니라 타국과도 공유하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데 CBDC에 대한 국가들의 적극적인 태도는 이런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국가들이 보았을 때 CBDC는 민간주도적인 디지털 화폐의 이득을 자연스럽게 중앙차원으로 흡수하여 독점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었다. 또한 CBDC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격화

된 중심부와 주변부의 갈등 속에서 디지털 화폐시장을 선점한 국가의 통화 권력적인 입지를 강화시켜 브래튼 우즈 II 체제를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시키는 이점을 가진 것이었다. 주변부인 중국의 경우 CBDC는 중심부인 미국의 신용남발을 막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국의 통화인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국제화에 따른 신용팽창의 금전적이고 정치적인 효과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반면 중심부인 미국의 경우 CBDC는 추가적인 신용팽창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달러패권질서를 더욱 강화시켜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국가들이 CBDC를 도입하는 목적이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자본주의 화폐보다 우월한 화폐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국가들의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현재의 국제통화질서와 경제작동 메커니즘을 지배하고 있는 브래튼 우즈 II 체제의 미래에 하나의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CBDC가 브래튼 우즈 II 체제의 미래에 그리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CBDC가 자본주의 화폐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신용에 기반을 둔 부채이기 때문이다. 부채로써 CBDC는 자본주의 화폐처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타인 및 타국의 희생을 대가로 사회적 부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가운데 시장경제를 불안정과 위기로 몰아가는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국가들이 CBDC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CBDC의 확산은 자본주의 화폐와 함께 부채경제의 문제점을 확대시켜 브래튼 우즈 II 체제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CBDC와 같은 디지털 화폐는 브래튼 우즈 II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산물이지만 오히려 이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벤자민 코헨.(1999). *화폐와 권력*. 박영철 번역. 서울: 시유시.

알베르트 바라바시.(2002). *링크 :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강병남& 김기훈 공역. 서울: 동아시아.

김기수.(2009). 국제금융위기와 국제통화질서: 금본위제의 교훈을 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제5권2호.

김종철.(2015). ”자본주의 화폐(money)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정치학적 설명. *국제정치논총* 제55집제3호.

박미영&최공필.(2022).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전략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급결제학회지* 제14권제1호.

박찬종.(2020). 금융화 시대 비트코인의 정치. *경제와 사회* 겨울호(제128호).

신희영.(2014).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평론* 60.

이영주.(2018).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정치경제적 성격: 비트코인(Bitcoin)의 화폐성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23권제1호.

정태인.(2014). 양적 완화, 그리고 신흥경제. *시민과 세계* 24.

조형진.(2021). 중국의 비공식적 경제 제재. *분석과 대안* 제5권제1호.

한영빈.(2022). 금융제재가 달러패권질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안* 제6권제2호.

송준혁.(2017). 가상화폐와 통화정책. *나라경제*.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1307&sel_year=2017&sel_month=11 (검색일:2022.12.10.).

조고운.(2021). 중국 디지털 위안화 추진 현황과 전망. *KIEP 기초자료*.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40000&bid=0005&act=view&list_no=9614 (검색일:2022.12월10일).

김서광.(2020년01월03일). 미중 패권다툼, 이제는 '디지털 화폐전쟁'으로. *비즈*

*한국*.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9225 (검색일:2022.12.02).

문정은.(2019년08월19일). 中, CBDC 도입…"주요국 디지털화폐 전쟁 시작됐다. *블록미디어*.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5286 (검색일:2022.12.02).

박효길.(2021년07월18일). [암호화폐 대격변] 글로벌 주요국, CBDC에 주목하다. *매일일보*.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46082 (검색일:2022.12.02).

이윤정.(2023년01월11일). 중국 지갑 열려야 세계 경제가 산다. *경향신문*. https://m.khan.co.kr/world/china/article/202301112041005#c2b (검색일:2022.12.02).

홍재은.(2019년11월07일). 리브라가 촉발한 디지털화폐 전쟁.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PFOA2PV (검색일:2022.12.02).

민병길,성영조&박원익.(2018).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이슈&진단 제 307호.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민병길&박원익,(2018). 암호화폐의 현황과 현대화폐이론(MMT) 관점에서의 비판. *정기연구원 기본연구 보고서*.

박동욱.(2021). CBDC 도입 동향 및 주요 고려 사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안병선&편명선.(2022). 가속화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과 시사점. *KITA 한국무역협회 연구보고서 TB15호*.

이승호.(202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의의, 영향 및 시사점. *자본시장 포커스* 제3호.

이용욱.(2021). 미중경쟁 2050: 통화금융. *EAI 스페셜리포트*.

장천.(2018). 비트코인, 디지털화폐의 한계. *성균차이나브리프*. 제6권제2호.

Aglietta, Michel.(2002). "Whence and Wither Money?" in OECD (eds.). *The Future of Money*. OECD Publication.

Altvater, Elmar&Mahnkopf, Brigit.(1997). *Die Grenz der Globalisierung. Ökonomie, Ökologie und Politik in der Weltgesellschaft*.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Heinrich, Michael.(1991). *Die Wissenschaft vom Wert*. Hamburg: VSA.

Keynes, John, M.(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In CWK Vol. VII. London: Macmillan(reprinted in 1973).

Bindseil, Ulrich.(2019).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Financial System Implications and 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8.

Birch, David G.W.(2019). The war over virtual money is real. *Journal of Payments Strategy & Systems* Volume 13 Number 4.

Braun, Benjamin.(2016). Speaking to the people? Money, trust, and central bank legitimacy in the age of quantitative easing.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23 No. 6.

Dooley, Michael P., Folkerts-Landau David&Garber Peter M.(2009). Bretton Woods II Still Defines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Working Paper Series* 14731.

_____.(2003). An Essay On The Revived Bretton Woods System.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Working Paper Series* 9971.

Helleiner, Eric.(1998). Electronic Money: A Challenge to the Sovereign Stat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1 no.2.

Herrera, Geoffrey L.(2002). The politics of bandwidth: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of a global digital information network.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8.

Palley, Thomas I.(2002). The e-money revolution: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24(2).

Adrian, Tobias&Tommaso Mancini-Griffoli.(2019, September 9). The rise of digital currency. *CEPR Policy Portal.* https://cepr.org/voxeu/columns/rise-digital-currency (검색일:2022.10.15).

Benigno, Pierpaolo, Linda Schilling&Harald Uhlig.(2019, October 3). World wide currency. *CEPR Policy Portal*. https://cepr.org/voxeu/columns/world-wide-currency (검색일:2022,10.15).

Bernanke, Ben.(2005, April 14). The Global Saving Glut and the U.S. Current Account Deficit. *FRB Speech*. https://www.federalreserve.gov/boarddocs/speeches/2005/200503102/default.htm (검색일: 2022.12.18).

BIS, Bank of Canada, European Central Bank, Bank of Japan, Sveriges Riksbank, Swiss National Bank, Bank of England&Board of Governors Federal Reserve System.(2020, October 9).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Features. *BIS*. https://www.bis.org/publ/othp33_summary.pdf (검색일: 2022.12.03).

Booth, Adam.(2018, January 12). The Bitcoin bubble and cryptocurrency craze. *Socialist Appeal*. https://socialist.net/the-bitcoin-bubble-and-cryptocurrency-craze/(검색일: 2022.01.15).

Niepelt, Dirk.(2019, September 12). Libra paves the way for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EPR Policy Portal*. https://cepr.org/voxeu/columns/libra-paves-way-central-bank-digital-currency (검색일:2022.10.15.).

Krugman, Paul.(2018, July 31). Transaction Cost and Tethers: Why I'm a Crypto Skeptic.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8/07/31/opinion/transaction-costs-and-tethers-why-im-a-crypto-skeptic.html (검색일: 2022.11.30).

Shrier, David.(2019, September 24). The Future of Money Isn't Libra or Chinacoin, it's Federated. *Forkast.* https://forkast.news/opinion-the-future-of-money-isnt-libra-or-chinacoin-its-federated/ (검색일: 2022.11.30).

Manuscript: May 12, 2023; Review completed: May 28, 2023; Accepted: May 30, 2023